

취학전 및 초등학교 영재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이 연 섭(중앙대)

I. 앞 말

영재교육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몇가지 우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영재”라는 말이 오용되고 있고 때로는 과용되기까지 한다. 즉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쓰면 바로 “영재”가 있고 “영재교육”을 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것이라는 생각에 빠진다. 정말 영재교육을 받으면 그 분야의 영재가 나타나는 것일까? 영재 또는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는 혹시 언어현실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와 함께 영재라는 말을 쓰는데는 윤리적·도덕적 문제가 있다. 어떤 아이를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부모·교사·학교가 영재라고 불러주어 스스로를 영재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다가 훗날 영재가 아님을 본인이 알게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실제로 외국에서도 그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영재를 키운다는 대학에서 자살율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때에 이 아이를 영재라고 부추겨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게된다. 영재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제한된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야한다. 자라는 동안에는 어른들의 마음

속에 담아두고 아이에게는 그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재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다양한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제도적, 행·재정적 뒷받침이 있다면 영재와 지진아가 다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성장과정에서 흔히 “똑똑한” 아이, “머리좋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재아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은 성장과정이 아니라 창의적 산물에 있다. 과학적 발견·발명, 예체능적 또는 사회적 성취가 영재를 결정해주는 준거이며 이와 연결되지 않은 잠재적 영재는 낭비 또는 미개발된 영재성일뿐 영재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이라는 말은 영재를 찾아서 너는 영재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교육을 받으면 영재가 된다는 논리가 아니라, 있을지도 모를 영재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느냐를 교육제도, 교육과정, 행·재정, 교사교육 등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 근래에 세계적으로 한국을 자랑스럽게한 예술가나 과학자 또는 국내의 우수한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국내에서 교육받은 사람 보다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상당한 기간 그들이 외국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성취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은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수준이 영재를 꽃피울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어린 영재에 관한 두가지 예를 필자의 경험을 통해 들어보겠다. 몇 년전 서울시 소재한 한 유치원에서 이상한 아이가 있으니 꼭와서 봐달라던 적이 있었다. 졸업에 못이겨 찾아가서 본 아이는 만 5세아였는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교사도 인정했고, 아이의 기억력에 대해서는 엄마도 놀라와할 정도였다. 다만 이 아이에게 엄마가 지쳐버린 것이다. 차라리 보통아이 같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였다. 필자가 이 아이를 만나본 결과, 이 아이의 발달이 평균연령 보다 2-3년 빠르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아이의 다양한 흥미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곳저곳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들을수 있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며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아이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현재 5학년으로 빈들빈들 노는데 성적은 좋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다른 예는 수원 의 어느 한 유치원에서 만난 아이이다. 이 아이는 4세아였는데 교사도 포기했고 엄마도 포기한 아이였다. 잠시도 가만있지 않아서 아버지가 매를 든 적도 있다고 했다. 이 아이의 높은 어휘력에 놀랐고 2시간 여에 걸친 관찰 끝에 좀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이 아이는 일반아와는 다르게 지

적 발달이 빠른 아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친구가 없었고 종아리를 보니 아빠한테 맞은 흔적이 있었다.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성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두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도움이 되지않는 체제였다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영재와 관련된 두가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조기입학제 도입고 다른 하나는 월반제이다. 먼저 이 두가지를 생각해 보자.

1. 초등학교 조기입학

어떤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 문제가 거론되고 결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생 중 똑똑하고 언어발달이 빠른 아이들을 조기입학 시키고있다. 이 제도가 “영재”라는 말을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발달이 빠른 아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얼마 전 신문에도 이 조기입학 아이들 중 상당수(500명?)가 초등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교육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보면서 딱한 심정이 든다. 초등학교 3학년 까지는 모든 아이가 한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야한다고 믿는 필자에게는 이해가 가지않는 일이다. 이 어린 나이에 이러한 실패경험을 시킨 죄인은 누구인가? 물론 우리 철없는 어른들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가 쌓여있지 않아 국내자료를 언급하여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산지석으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거울로 삼을 수 있다. 엘킨드(1987)의 요약을 보자.

미시간주 그로스 포인트(Grosse Pointe, Michigan)에서 수행된 연구는 시사적이고 교훈적이다.

14년 간의 종단적 연구를 한 후, 그로스 포인트 학교는 영리한 어린이를 위한 조기입학 프로그램을 포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 조기입학아의 거의 1/3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조기입학자의 1/12만이 이 실험이 끝날 때에 특출한 지도자로 판명되었다.
3. 거의 3/4이 지도력이 전혀 부족하다고 판명되었다.
4. 영리한 조기입학자 어린이 4명 중 1명은 학교에서 평균 이하이거나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만 하였다.

외파코네타(Wapakoneta, Ohio)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자.

모든 어린이가 3학년을 마쳤고 일부는 6학년을 마쳤는데 이 결과는 인상적이다.

1년 늦게 입학한 소년들은 79%가 평균 이상의 수준인 반면 일찍 입학한 소년들은 단 27%만이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여자 아이들의 경우, 늦게 들어간 여아 71%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는데 비해 학교를 일찍 들어간 어린이는 22%만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결론은 명확해진다. 유치원 학급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어린이는 학급에서 가장 연령이 어린 어린이들 보다 훨씬 학문적으로 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분명하다. 서양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임을 가정하면서 위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조급히 서두르는 심리의 희생물이 되어 인생의 그 좋은 초기 경험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어야 하는지 우려된다고 하겠다.

2. 월반제

1960년대까지 있었던 월반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월반이란 학년을 뛰어넘는 것인데 이것은 월학년과 같다. 월반제도는 몇가지 전제 하에서 채택되는 제도이다. 먼저 수직적 속진이 영재성 개발에 필수라는 것이며 둘째는 소위 영재아들이 이 속진제도에서 적응을 잘할 것이라는 것이며 세째는 모든 교과 영역에서 다같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 세가지 전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첫째 전제는 우리의 교과가 수평적 · 수직적 풍요화가 결핍되어 있고 수직적 위계성만 있어 옷자란 벼처럼 위험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자기의 능력을 현실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 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월반제가 사회적 적응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험은 참고가 될 것이다. 수직적 · 수평적 풍요화가 우리 보다 나은 미국에서도 월반제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며 해당 연령 집단에 가장 어린 아니로 남아있다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세째 월반제는 모든 교과목에서 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답변이 없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월반했던 학생들이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는 증거는 사실상 주위에서 찾기가 쉽지 않으며 오직 1년을 빨리 다녔다는 것과 등록금을 1년분 절약했다는 것, 옛날(30년전)에 월반한 학생이었다는 것 외에 특기할 사항이 없다. 또한 월반은 고교까지 12년 교육에 몇번을 시켜도 좋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거에 시끌벅적하게 신문에서 기사화됐던 월반했던 신동, 천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1살에 대학 강의실에서 체구에 맞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 혹시 속진 월반제의 희생은 아니었던가. 왜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려고하는 것일까.

위에서 본 제도들은 실패한 제도였다. 꼭 실패를 확인하고 싶으면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희생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궁금하다. 벌써 그 실패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II. 몇가지 제언

첫째, 이제 장학제도를 바꿀때가 되었다. 학생을 총평(assess)하고 평가(evaluate)하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교사의 학습지도 활동을 도와주는 교육과정 전문가도 필요하며 학생의 특수 필요를 위한 자원교사(resource teacher)도 필요하다. 현재의 장학제도는 아직도 일제의 사학관 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고 교사·학생·부모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보다는 정부시책하달이나 기타 행정사무에 시달리고 잡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문제가 터지면 수습이나 하는 타격대의 역할이다.

해당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갖고 실무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 한다. 학생 300명당 3인의 교육전문가를 두는 외국의 제도(School Psychologist, counselor, Curriculum Specialist)는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전문가들이 하는 기능을 교사에게 떠맡겨왔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는 가르치고 상담하고 연구하며 사무도 보아야한다. 한마디로 교사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있다. 교사의 직책은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것 이외의 일은 이제 덜어내야하며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각 전문가의 역할, 자격 등은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피하기로 한다. 미국 어느 주의 교육부 300명중 180명이 이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음은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 주교육부의 아동발달국을 따로 두고있는 경우도 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의 성장발달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장학실이다. 여러 전문가가 아이들을 위하여 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차례 교육개혁안이 나왔지만 한번도 장학직에 대한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으며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전문적 서비스 없이 부모와 교사에게만 맡기는 교육은 그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에 있었던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국민학교 1학년 선생님이 School Psychologist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이유는 학급의 한 아이가 있는데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으며 과행동성(hyperactive)을 보이며 늘 야단을 치게되고 이

것이 부모에게 알려졌다. 부모는 교사를 비난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던 것이다. 이 학생에 대한 서비스요구를 받은 교장은 School Psychologist를 불렀다. 교육국에서 나온 School Psychologist는 교사의 관찰기록을 받고 아이의 과거 history를 학적부에서 찾아내고 교실에서의 행동을 관찰했으며 부모를 면접하고 다른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여러 검사(지능, 사회적응 검사 등)를 실시하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달 뒤에 보고서를 썼다. 이 아이는 3년 정도 발달이 빠른 아이였으며 학교에서 시키는 것은 재미가 없어서 흥미를 잃고있었다. 쉽게 말하면 영재성이 있는 아이였었다. 지능도 148이었다. 이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폭 빠져있었다. 교사가 생각한 사회적 문제아가 아니었다. 교사와 부모 누구도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것이었다. School Psychologist는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논하여 그 학교에 있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에 넣기로 하였다. 또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특활 시간에 여러 게임활동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3개월 뒤 교사도 부모도 만족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간단한 사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이때의 기록은 그 아이의 종합생활 기록부에 첨부되어졌다.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다면 이 아이가 문제아로 컸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둘째, 무학년제의 도입을 제의한다. 우리의 교육은 일괄작업식 학년중심 시험중심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학생의 특수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영리한 아이도 어렵고 지진아도 어렵게 되어있다. 무학년 제도에서 학년이라는 개념은 교사가 평가상 갖고있는 것이며 학생은 학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4학년 아이는 과목에 따라 수강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같을 수도 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다른 것이다. 1학년 부터 6학년 까지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학년으로 묶거나 3개 학년으로 묶을 수도 있다. 이 무학년제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의 큰 장점으로 앞에서 언급한 월반제의 약점을 제거해 준다. 또래집단과 소외될 필요가 없고 과목에 따라, 흥미에 따라 선택 폭이 넓어진다. 과목에 따라 만나는 또래가 달라짐으로써 현재 우리 학교교육의 약점인 같은 또래 아이들로 구성된 학급에서 정해진 교과서로 순서화된 학년으로 질서정연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 혼합연령으로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보자. 한 여학생은 소문난 신동이였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6학년 과정을 거의 다 마친 일등 학생(top student)이였다. 학교는 School Psychologist의 도움을 받아 이 아이가 영재성이 있는 아이로 받아들이고 중학교 과목을 한두과목 들으면서 봉사활동에 참여시켰다. 이 학교에는 학생

교사제도(student-tutor service)가 있었다. 이 제도에서는 봉사가 학점으로 인정이 되며 졸업을 위해서 봉사학점을 따야한다. 이 학생은 1주일에 2, 3번 4학년 학생 중 지진아를 맡아서 지도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봉사를 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속진을 시키지 않고 봉사를 통해 이 학생의 사회화를 촉진시켜 주었던 것이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이 학생은 medical-research를 꿈꾸며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사회봉사를 하는데서 오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속진 프로그램 보다 심화 또는 풍요화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발달적 특징에 있다. 생후 12년 까지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구조적 필연에 의하여 활동한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구분해 왔다. 구조적 필연은 내재적 동기의 한 형태이다. 이 동기는 지적 잠재성과 정신적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 욕구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말하기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언어사용을 놀이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발명적인 철자”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전에 없는 말을 쓰기도 하며 그 말이 실제로 어떤 뜻이 있는지 과감하게 말해 본다. 아마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이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엉뚱하고 상황에 맞지 않으며 뜻이 맞지 않는 말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두뇌구조를 갖고 있으며 혀와 성대, 폐라는 신체기관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장치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진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고나면 이러한 구조적 필요는 감소하게 되고 다른 내재적 또는 외재적 동기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적동기로 인해 외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외국어를 말하면 훨씬 쉽게 그것을 배울 수도 있다.

초등학교는 구체적 조작기이므로 앞서 교육과정을 위해서 말했듯이 실제로 조작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구조적 필연이 확장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의 이러한 구조적 필연을 지지해주고 고무해줄 때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된다. 학교나 가정에서 구체적 조작 능력을 연습시키고 풍부히 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줌으로서 용이해진다. 반대로 이 시기에 형식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밀어 붙이면 구체적 조작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될 위험이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델리트는 1984년 국제적인 학생 작곡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다. 그녀의 수상 작품은 “Fun suite” 라는 제목이다. 이 작품은 벌써 Rockland Sububan 오케스

트라, 덴버 심포니 오케스트라, WQR-FM 방송에 의해 연주되었다. 작곡실력 외에도 그녀는 연주가로도 활동중이고 대회에 참가하기 몇달 전에 그녀는 베토벤 소나타 G장조, 모차르트 환상곡 D단조를 연주한 독주회를 가졌었다. 세계대회에서 그녀가 수상자로 확정되었던 1984년에 그녀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칼리어가 델리트의 연주를 듣고난 후 감탄하여 한 말이 있다. “그 아이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그 아이의 창조성, 리듬, 즐거움- 이것은 누구도 배울 수 없는 예술성이다. 그 아이의 기교는 뛰어나지 않지만 그녀가 내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이다.”

그리고 또 그녀의 작곡에 대해서도 말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다.” 내가 그 아이같은 자식을 두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뭔가 잘 못 해 주는 것이 아닐까, 저 재능을 길러줄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델리트의 재능은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녀 어머니의 “가르침”은 델리트의 흥미와 음악적 재능을 확장시켜 주었다.

델리트는 영아때 부터 피아노에 흥미를 가지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그 아이가 3년 6개월 되자 루티(그녀의 어머니)는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빠르게 습득하였다. 1년 후에 전문적, 객관적 의견을 듣고자 루티는 딸의 연주를 줄리아드 음대에서 존경받고 있는 라이젠버그 교수에게 들려주었다.

라이젠버그는 모녀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때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것에 대해 회의와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라이젠버그는 그녀에게 “계속하세요”, “이 아이를 음악학교에는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보내면 그 사람들은 이 아이의 음악을 로봇처럼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라이젠 버그는 델리트를 음악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다. 델리트에게 형식적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그녀의 음악을 로봇처럼 만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유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딸에게, 딸이 해야만 할 바를 결정해주었다기 보다는 딸이 요구한 교육을 딸에게 해줌으로써 델리트의 어머니는 직관적으로 올바른 교육과 잘못된 교육의 차이를 알았다.

우리가 명심해야될 것은 천부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어린이는 이런 구조적 필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린이들은 전통적인 동기들(경쟁심, 성공, 성적, 외적보상 등등)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구조적 필연은 소멸한다. 이런 예는 많은 자서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학교를 계속 다닐수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선생님의 애정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도 그를 바보라로 여겼다고 회상했다. 토머스 에디슨의 구조적 필연을 학교나 가정에서 아

무도 읽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신의 천부적 재능으로 인해서 자신의 구조적 필연을 실행해 볼 수 있는 가정, 학교 밖에 있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예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의 아들의 회상에 의하면 아버지(아인슈타인)는 세상과 등져있었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버지를 뒤쳐진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 늦고 바보같은 꿈 속에서 영원히 표류할 것이라는 기억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그의 구조적 필연을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구조적 필연은 우리가 무시한다면 많은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묻혀버린 천재로 남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우리는 아이들의 구조적 필연을 도와줄 수 있는 심화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네제, 다양한 교육심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영재교육 센터에서 하고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도 사실상 공개된바 없고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교육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이 필자가 알기로는 없다. 외국의 경우 4-5년에 걸쳐서 수백만불의 돈을 들여 각 주마다 또는 대학마다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돈을 투자할 의사도 없고 그 오랜 시간을 기나려줄 사람도 없으며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보면 돈 안들이고 생색내는 방법을 강구하는데만 바빠온 것이 교육정책이 아닌가 한다. 금번의 교육개혁안에서도 교육현장을 위한 개혁은 뚜렷한 것이 없다. 아마 월반제나 조기입학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이 아닐까.

영재교육 과정은 아동이 학년, 연령과 상관 없이 높은 수준의 학습내용에도 접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다양한 흥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흥미 추구 과정에서 주어진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나 소재가 교과와는 무관한 것 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과제 보다는 개인적으로 결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미 정해진 계획이라도 학생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학습의 초점은 주로 질문과 문제에 두고 이미 학습한 것을 토대로 사회적인 문제나 논쟁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도록 한다. 이 때 교사의 역할은 직접적인 감독 보다는 보조자로서 학습에의 자극(도전)을 주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진리 탐구에 대하여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영재 교육과정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특별히 지켜야 할 원리를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교

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과 쫓병의 선정에서도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와는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제관련 학습 : 학습활동은 사고와 활동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과 관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과 곤충의 신체 부분과 같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비교'라는 사고기능을 사용하도록 자극을 준다.

(2) 과정중심 교육과정 : 정보의 습득 보다는 사고 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앞서의 예는 사고기술로서의 비교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3) 활동중심 교육과정 :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초점으로 삼아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앞서의 예에서는 다이어그램이나 모형을 만드는 활동을 하여 학습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다.

(4) 개방적인 교육과정 : 학습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반응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앞서의 예에서 비교의 방법이나 그 대중을 제한시키지 않음으로써 비교라는 사고기술이 다른 학습경험으로 전이되고 적용될 수 있다.

(5)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 중시 : 학습자는 그들의 선호, 욕구, 능력 등에서 개인차가 크므로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앞서의 예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나 곤충의 종류에 대해서 또는 어떤 소재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학습자가 자기의 능력 및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의 원리들을 실제 학습활동의 조직 및 제공에 적용함으로써 영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만족할 정도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투자할 시간과 재정이 부족하다면 외태차 대신 이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것은 어떨까?

몇 년전 위의 교육원리를 의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가을 과학 경진대회에서 보았던 것으로 경진대회에 출품된 몇가지 프로젝트가 생각난다. 강원도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자기부상 기차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실제 뜨게했던 경우도 있었고 한 5학년 여학생은 바퀴벌레의 생활주기를 1년간 관찰해서 보고한 것도 있었다. 사실 필자는 바퀴벌레가 5월, 8월에 왕성하게 번식한다는 것을 그 때 알았다. 이런 주제 중심 프로젝트가 과학지식 습득과 응용, 전이 등을 포괄해 주는 좋은 심화 프로젝트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근래에 와서 유아교육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이 소개되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의 다상징적 접근방법이나 카츠, 차드의 프로젝트 접근법도 이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Ⅲ. 맺음말

앞말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영재와 지진아가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한 지적 영재성이 있는 아이가 어떤 지적 성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인과성(personal causation)에 달려있다. 이 개인적 인과성이란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부딪치면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고 싶으며 무엇을 꼭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다짐하게 한다. 파스퇴르라는 미생물 학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광견병 백신을 완성하였다. 프랑스에서 그는 국민학교 두 교실을 꽉 채울만큼 많은 미친개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그 백신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다. 그는 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였을까. 어렸을 때, 그가 살던 마을에서 광견병으로 죽어간 환자들을 많이 보았던 것이다. 즉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인과성인 것이다.

이 간단한 예는 우리에게 영재가 일반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커야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개인적 영달과 성공, 부가 아니라 이타적 이기주의 - 남을 도와주는데서 얻는 보람을 자라면서 배워야하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적 영재아의 사회화에 가장 큰 과제다. 흔히 과학 영재라하여 따로 떼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만에 하나 이러한 사회화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많은 영재 프로그램이 또래, 선배, 후배를 도와주는 활동을 꼭 포함시키는 것도 이때문이 아닌가 싶다. 많은 머리좋은 사람들이 그 머리를 남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해치는데 써온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은가.